



농어업위, 강원 산불대응기관 직원격려와 애로사항 청취

- 강원산불협업 대응기관 및 옥계 산불피해복구 조림지 현장 방문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6.14 “강원도산불방지센터”와 2022년 옥계산불피해지를 복구 조림한 국유림 현장을 찾았다.

장태평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고생한 산림 관계자 등의 노력과 헌신을 격려했다. 강원 동해안지역은 작년에 역대급 산불에 이어 올봄에도 극심한 가뭄과 초속 20m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산불로 인해 현행 산불대응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경포대 일대 산불이 매우 어렵게 진화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강원도산불방지센터”는 전국 유일의 산불대응 전담기관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림청, 소방청, 기상청 등 35여 명의 직원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통합진화자원 운영 및 상황관리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산불집중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현재는 상황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장은 강릉 도심형 산불을 계기로 강풍으로 인한 산불에 대해 효율적인 산불진화와 민가보호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산불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문지는 2022년 3월 5일 지역주민이 토치를 이용한 방화로 1,486 ha의 산림이 소실된 옥계 대형산불 피해지 일대의 국유림(484ha) 조림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대규모 산불피해지역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복구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자생수종과 벗나무, 아카시나무 등 밀원수종 등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국유림에 경영기반시설 임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드론 등 정밀조사가 병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태평 위원장은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산림경영방식의 문제점과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산림의 다원적 가치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데 농어업위 미래산림특별위원회가 앞장 설 것이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농어촌정책팀	책임자	팀 장	엄성준 (02-6260-1221)
		담당자	사무관	정삼녀 (02-6260-122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